5년간 9045억 가치 창출… 투명성·건전성 향상 기대

전자증권시대 개막

상장주식·채권 절차없이 일괄 전환
투자자 위·변조, 도난 우려 해소되고
기업 자금조달 소요기간 단축 효과
은성수 "비효율 사라지고 혁신 가속"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부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종이 증권을 세절기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제 종이증권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비용절감 등 전자증권제 시행에 따른 경제 효과만 향후 5년간 9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증권의 디지털화인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에 있어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념식에는 은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전면 시행됐다.

은 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라 할 수 있다"며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돼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장주식이나 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과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만 예외가 허용된다. 만약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삼일PWC는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9045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도난 우려가 사라진다. 증자·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게된다.

기업 역시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사들은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용이해진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인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려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전환신청→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통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치솟는 국제유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 시설과 유전이 지난 14일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16일 국제유가가 개장과 함께 20%가량 폭등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직원들이 런던 ICE 선물거래소 브렌트유 가격과 뉴욕상업거래소(NYMEX)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 추이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美·日 FTA 체결땐 韓 수출기업 22% 감소"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무역수지 275억달러 줄어들 듯
지원·육성 '투트랙 전략' 필요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여러 지역에 부문별 글로벌 CGE 모형 분석을 활용해 미일 FTA가 체결되면 일어날 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연구했다.

이에 따르면 FTA 체결 수준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이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2%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미일이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에 머무른다면 1.5% 안팎에 불과하겠지만, 전부문 관세 인하와 철폐로 확대하면 자동차운송 2.8%, 전자 부문 6.8% 대폭 줄어든다. 전 부문 수입 관세를 100% 철폐하면 기계 부문 수출 기업이 22%나 쪼그라든다고 예상했다.

한국 총 생산 및 무역수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산업 총 생산은 0.4% 감소에 그치겠지만, 무역수지는 275억달러가 줄어든다고 봤다. 특히 기계 부문에서 306억달러 악화 효과가 우려됐다.

단, 산업별로는 다른 효과를 보일수 있다고 봤다. 축산낙농,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 등은 총 생산이 감소하지만, 기타1차, 석유화학,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도 전 부문이 악화되지만 석유화학 및 철강금속 부문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특히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06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효과를 보였는데, 향후 미일 FTA와 한일 무역분쟁 진행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산업별 지원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향후 추이를 봐가며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분쟁 또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웅 기자 juk@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공정위 "불공정성 자발적 개선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10년인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현재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는 연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약관법 위반으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과 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이용편익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온 소멸시효 관련 문제까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제재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일부 불공정성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항공사들에 마일리지 좌석을 별도로 할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일리지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여행객은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도 있게 된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사 마일리지 사용량이 발행량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마일리지 사용 확대 방안으로 복합결제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성인 절반 "부모가 도움준 성공, 상대적 박탈감 느껴"

사람인 3289명 대상 설문

성인남녀 10명 중 7~8명은 부모의 능력이 자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사람인이 성인남녀 3289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공과 부모의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는 '부모 능력이 자식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자식의 성공에 있어 부모의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0%로 집계됐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능력(복수응답)으로는 '경제적 능력'(75.3%)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맥'(59.3%), '사회적 지위'(55.6%), '직업'(41%), '가정환경'(39.8%), '정보력'(3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5%는 '부모 능력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순간(복수응답)으로는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을 볼 때'(70.9%)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부모 회사에 바로 입사하는 사람을 볼 때'(51.9%), '사회지도층의 청탁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48.3%), '부모를 통해 입시, 취업을 청탁하는 사람을 볼 때'(45%), '면접에서 부모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17.6%)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런 박탈감의 불똥은 아무 잘못 없는 부모에게로 이어지기도 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본 성인남녀 3명 중 1명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본인 부모의 능력에 대해 원망해 본 경험(34.3%)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hys@